

Press Release

대안공간 루프, <김우진 개인전: 다음을 듣고 따라 하시오> 개최

2019년 12월 19일(목)-2020년 1월 19일(일) AM10:00~PM7:00

오프닝: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6시 / 대안공간 루프

**김우진 개인전:
다음을 듣고 따라 하시오**

(한국어)



1. 오프닝
2019/12/19/(목)오후6시
2. 기간
2019/12/19 ~ 2020/1/19
10am~7pm
3. 장소
대안공간 루프
4.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5. 후원
서울문화재단



(EN)

**WOO JIN KIM
SOLO EXHIBITION:
YOU WILL HAVE
TO FOLLOW THE
DIRECTIONS YOU
HEAR**

1. Opening
6pm Dec 19th(Thu), 2019
2. Schedule
10am ~ 7pm
Dec 19th 2019 ~ Jan 19th 2020
3. Venue
Alternative Space LOOP



Organized / Presented by Alternative
Space LOOP
Sponsor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9 대안공간 루프 작가 공모 선정 전시

대안공간 루프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김우진 개인전: 다음을 듣고 따라 하시오>를 개최한다. 김우진은 '2019년 대안공간 루프 전시작가 공모'에서 선정되었다. 작가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익숙하고 기초적인 사회적 규범, 장치 등이 개인의 삶에 은밀하게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전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마비된 시선을 인식하고 그 과정을 추적하는 개인의 작은 질문에서 시작했다. 신작 <완벽한 합창>은 제주 해녀의 노동요 '이어도사나'의 일부를 무형문화재인 제주 해녀노래 전승자와 실제 해녀들이 노래한 영상작품이다. 9개의 인터뷰로 구성된 <완벽한 결막의 서막>은 대만, 홍콩, 한국(제주)에 거주하는 모국어 사용자들의 언어에 대한 기억을 다룬 영상작업이다. <한국어 받아쓰기_다음을 듣고 따라 쓰세요>는 제주 토박이 할머니가 제주 방언으로 어린 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상이다. 카메라는 이 녹음을 외국인 듣기 평가 형식으로 받아쓰기를 하는 손과 글씨를 클로즈업한다.

김우진은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기억되는지 수집한다. 우리를 규정짓는 특정한 프레임에 질문을 던진다. 맞고 틀린 것, 좋고 나쁜 것으로 규정된 시스템에 의문을 가지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추적한다. 다시 이와 관련된 개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시각적 작업을 도출한다.

Press Release

김우진(b, 1976)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골드스미스에서 순수미술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Open Site, Brave New Exercise: Memorizes Movement, 도쿄 아트앤스페이스, 2017>, <Hidden Frame,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2016>, <Build Up,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2015> 등이 있으며, <Kotodama, 파라사이트, 홍콩, 2018>, <고독의 기술, 금호미술관, 서울, 2018>, <Up Beat, 서울 무용센터, 2016>, <오픈스튜디오 10, MMCA고양레지던시, 2015>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금호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전시는 서교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전시작품 소개 및 작가노트

완벽한 합창/ The perfect Harmony



4채널 HD비디오, 5분 12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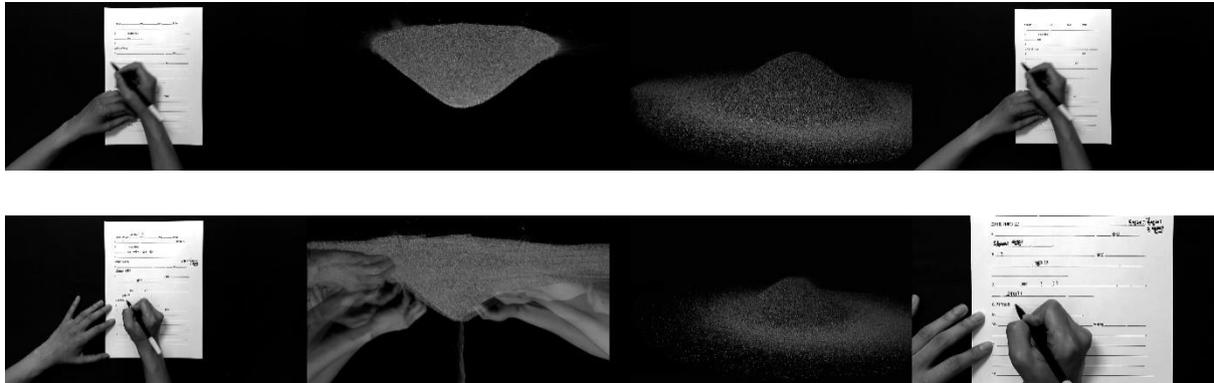
<https://vimeo.com/292444050>

제주 해녀의 노동요를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무형문화재인 제주 해녀노래 전승자와 구좌읍 해녀들을 출연자로 제작한 4채널 영상 설치 작품이다. 해녀들조차 관조적으로 “이제 진짜 해녀는 없어, 그나마도 곧 없어질거야”라고 하는 말처럼 제주어 역시 심각하게 사라지는 지점들의 유사성에서 가져와 제작한 작품이다. 합창 사운드는 해녀 노동요의 방식대로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합창 사운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사람씩 목소리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선창자만 남고, 그를 따라 부를 사람은 그만큼의 공백으로 남는다. 영상도 마찬가지로, 5개의 레이어로 쌓여있는 인물들은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화면의 끝에서부터 서서히 하나하나 사라진다. 관객이 잘 살피지 못할 경우 화면의 중간 정도 와야 사람들이 사라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상에 사용된 해녀의 노동요는 ‘이어도사나’라는 노래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이다. 이미 많은 부분 해녀들의 노동요에서조차도 제주도 말은 표준어로 대체되었고, 대부분의 해녀의 노동요는 표준어를 바탕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들었다.

Press Release

한국어 받아쓰기_다음을 듣고 따라 쓰세요.



4채널 HD 비디오, 5분 26초, 2019

<https://vimeo.com/376273509>

제주도 말로 제주 토박이 할머니가 손녀에게 할머니의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을 녹음한 것을 바탕으로 이를 외국어 듣기평가 형식으로 바꿔 제작한 작업이다. 손녀의 이야기와 어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추해보면 해녀였던 할머니의 물질 이야기와 농사일 이야기인 듯해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표준어 사용자인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말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단일어인 한국어라 배워오고 믿어왔던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언어는 하나의 은유로 체조와 언어, 이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숨어있는 경계, 내 안의 경계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 의심을 해보고자 한다.

완벽한 결말의 서막, 9개의 영상



<https://vimeo.com/292444100>

<https://vimeo.com/292443383>

<https://vimeo.com/292443614>

총 9개의 개인, 그룹인터뷰로 구성된 영상으로 각 영상은 <완벽한 결말의 서막 _K(나라)-19(인터뷰 연도)-01>과 같이 제목이 붙는다. 언어의 변화과정에 대한 한국과 대만, 홍콩에서 유사 상황/나이별 사람들 그룹 (예를 들어 대만의 60대 이상 객가어 사용자 그룹) 혹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이다. 인터뷰의 목적은 언어변화과정에 대해 개인들의 기억을 수집하는 것으로, 언어변화라는 조금은 모호하고 큰 역사적 과정들이 개인들의 기억에는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대해 수집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대만 홍콩은 전혀 다른 공간이지만, 학교에서 표준어 등 특정 언어를 사용하게 한 점 사투리 혹은 지역어 등 소수 언어와 계급을 연결하는 점, 그리고 점차 특정 언어에 대한 수업을 암암리에 늘려가고 있는 점 등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인터뷰들이 구성되어있다. 이는 비단 한국, 대만, 홍콩 뿐만 아니라, 표준어 규정 등이 있었던 프랑스, 일본, 유럽 각 지역 등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 인터뷰에서 등장한 처벌의 방법들- 팻말 목에 걸고 뒤에 서 있기 등-은 거의 유사한 처벌 방법들이 일본 오키나와와 프랑스 지방들에서 발견된다.) 개인들의 기억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변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Brave New Exercise: Memorized Movements



3채널 HD 비디오, 1분 14초, 2016

<https://vimeo.com/191234142>

Brave New Exercise Project의 한 부분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의 국가 주도 집단체조를 소재로 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국민체조 등 집단체조를 하던 형식과 유사하게- 앞에서 체조를 해주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게 제작- 연습 1번과 실행 1번, 기계적으로 총 2번의 체조를 영상과 함께 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촬영, 편집하여 구성하였다. 처음에는 다들 체조의 동작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체조가 시작되고 연습 1번이 끝난 후에는 몸이 순서와 동작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놀라움을 표하였다. 각 나라의 체조의 유사 부분들을 모아 순서를 다시 편집하였고(Brave New Exercise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의 체조의 유사 부분을 연결해서 새로운 체조를 만드는데, 이 작업은 두 번째 형태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한국과 일본의 것만을 가지고 제작), 여러 사람(약 60여명)이 참여하였지만 각 화면 별로 마치 한 사람이 동작하는 것처럼 구성. 집단체조 이면의 이야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였다.

Press Release

전시서문

다음은 듣고 따라 하시오

글: 이선미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사회, 관습적 체계이다. 체득한 규칙에 따라 무한한 문장을 생성시킬 수 있는 인간의 언어 능력은 인류가 다른 영장류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우월하고 특별한 기능이다. 인류의 뛰어난 언어 능력은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냈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생성, 발전, 소멸을 거듭해왔다. 대항해시대 이후 제국 열강들의 식민지배와 거듭된 전쟁으로 약소국의 언어는 점차 사라져 갔고, 아시아 역시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많은 언어들이 소멸되었다. 강자에 의해 정책적으로 지시된 언어교육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우월성을 각인시키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비슷한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의 경우 각 사회마다 언어가 사라지는 과정이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때문에 국가와 인종은 다르지만 한 개인이 기억하고 있는 소멸의 과정은 서로 유의미하게 연결된다.

학창 시절, 우리는 단일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으로 교육받는다. 국가가 지정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며, 지역이나 계층을 법으로 한정시켜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회적 상위 계층' 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한다. 단일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교육받은 김우진의 작은 호기심은 대만에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체류했을 당시 현지 친구와 무심코 나누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급격한 역사의 변화를 맞이한 대만 역시 객가어를 비롯한 대만어, 원주민어 사용을 정책적으로 금지당했고, 학교에서는 만다린어를 교육받았다. 만다린어 외 다른 언어를 쓰는 학생은 "나는 방언을 사용했습니다"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있어야 했고, 반장은 방언을 쓰는 학생을 선생에게 고자질해 체벌을 받게 했다.

9개의 인터뷰로 구성된 <완벽한 결막의 서막>은 대만, 홍콩, 한국(제주)에 거주하는 모국어 사용자들의 언어에 대한 기억이다. 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받았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된 언어 사용을 종용당했다. 작가는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기억되는지 수집한다. 할머니의 제주 방언으로 제작된 <한국어 받아쓰기_다음은 듣고 따라 쓰세요>는 한국어는 단일어로 교육받은 우리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 언어의 단일화는 제주 방언을 사라지게 했고, 표준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은 제주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다. <완벽한 합창>은 제주 해녀의 노동요 '이어도사나'의 일부를 무형문화재인 제주 해녀노래 전승자와 실제 해녀들이 노래한 영상작품이다. "이제 진짜 해녀는 없어. 그나마도 곧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해녀들의 관조 섞인 말처럼, 제주 방언으로 된 노동요 조차 표준어로 대체되었고, 현재 불리우는 해녀 노동요는 대부분 표준어를 바탕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되었고, 언어의 소멸은 고유의 문화 역시 사라지게 했다.

김우진은 한국어는 단일어로 교육받아온 우리의 굳건한 믿음에 균열을 피하 듯, 우리가 인지하지

Press Release

못하는 가장 익숙하고 기초적인 사회적 규범, 장치 등에 질문을 던진다. 전작인 <Brave New Exercise>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국가 주도 집단체조를 소재로 제작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억을 더듬어 기계적으로 체조 동작을 수행해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일본의 도수 체조, 라디오 체조 등에서 비롯된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비슷한 형태의 집단체조는 영상에 등장하는 60여 명이 마치 한 사람이 동작하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다음을 듣고 따라 하시오》는 어린 시절부터 모두가 듣고 봐 왔던 익숙한 지시어다. 우리는 늘 익숙한 듯 구령에 맞춰 집단체조를 해왔고, 사회적 언어를 습득해왔다. 정해진 프레임을 벗어난 소수는 관습에 따라 잘못되거나 틀린 사람으로 규정된다. 전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마비된 시선을 인식하고 그 과정을 추적하는 개인의 작은 질문에서 시작했다. 사회 속에 숨어있는 프레임과 그것을 작동시키는 일상의 장치는 개인을 은밀하게 집단화시킨다. 김우진은 우리를 규정짓는 특정한 프레임에 질문을 던진다. 맞고 틀린 것, 좋고 나쁜 것으로 교육받아온 수많은 사회적 규칙들은 실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작가는 《다음을 듣고 따라 하시오》가 지나치게 역사적 쟁점이나 사회적 이슈로만 읽히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의 사소한 장치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들은 단지 규격화되어가는 각 개인에게 소소한 해방을 권유한다.

김우진 개인전: 다음을 듣고 따라 하시오**2019 대안공간 루프 작가 공모 선정 전시**

전시기간: 2019년 12월 19일(목)-2020년 1월 19일(일)

참여작가: 김우진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서울문화재단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u0g5klgaldons3/AAA4VtMuBGxNIPt78lo1Tlfqa?dl=0>

사진설명: <김우진 개인전: 다음을 듣고 따라 하시오> 전시작품 이미지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Press Release

관련링크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

언론문의처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피지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